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 본당소식

### ◆ 콜럼버스 교구 Parish Self-Study 재정부문 모임

- 일시: 8월 2일 (토) 저녁 7시
- 장소: 사제관
- 참가자: 부회장, 총무, 사윤진 아우구스티노, 김한식 요셉, 서태수 바오로, 이건영 프란치스코, 김영천 알렉산델, 선세경 데레사, 고상식 야고보

### ◆ 오늘 미사 후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 ◆ 7월, 8월 복사단 부모 모임 없습니다.

### ◆ 빈첸시오회 무료급식 봉사

- 매월 둘째 수요일마다 우리 공동체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sup>th</sup> Ave  
Columbus, OH

### ◆ 친교 준비 봉사자

- 7월 27일: 김한식

### ◆ 7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제준 구역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3,1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친교시간 이후 각자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17주일 July 27, 2008



<그물의 비유>

19세기, 유리화, 힐레스덴의 성 니콜라스 교회, 영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72.00
교 무 금	
감 사 헌 금	\$200.00

- 교 무 금: 고상식
- 감사헌금: 정동완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열왕기 3,5-6,7-12

“너는 분별력을 칭하였다.”

화답송



주님, 제가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하나이 까!

제 2 독서 로마서 8,28-30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3,44-52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905단 16명
이호영	단 명	8,538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645단 70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 - 7/20/08 (231주)

☞ 총누계: 198,098단 12,680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7월 27일	8월 3일
전례준비	박시영	김준승
해설자	김오경	신현태
독서/봉헌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입당: 44      ♫ 봉헌: 218  
♫ 성체: 175 180      ♫ 파견: 431

## 하늘 나라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 / 폰벤두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토지 작가 고(故) 박경리(대례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맘에 와 닿는다. “가장 순수하고 밀도가 짙은 사랑은 허덕이고 못 먹는 것,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한 연민이다. 모진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출가분하다.”

한 방송사의 드라마에서 부모가 반대하는 혼인을 고집하는 큰딸이 엄마에게 대들며 말한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엄마가 왜 반대해?” 그러자 옆에 앉았던 아버지가 “아빠 인생 속에는 너희들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의 삶 속에 자식들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소설과 시, 드라마에서도 삶을 배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 말하려는 뜻을 찾아야 한다. 성경을 지나간 역사로 알아듣거나 문학 비평적이고 역사 비평적인 뜻에만 얽매어서는 안된다. 우리 각자는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자기의 고유한 구원의 역사를 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농사꾼, 장사꾼,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오늘 비유는 마태오 복음에만 나온다).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잦아 밭에다 보물을 숨겨 두고 피난하는 일이 있었다. 피난 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보물은 그대로 숨겨져 있게 된다. 그런데 가난한 소작인 또는 낱품팔이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단지를 보게 되어 그는 기쁨에 넘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러면 밭에 묻힌 보물도 합법적으로 그의 것이 된다. 하느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이 농사꾼처럼 처신한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진주는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다. 밭에 묻힌 보물과 진주의 비유는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어부들은 물가에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율법으로 금하는 뱀장어, 메기처럼 비늘이 없는 고기)을 가려 낸다. 이는 종말에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채워 주지도 못하면서 우리 맘을 차지하고 있는 쾌락과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결정적으로 그분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하느님 나라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 자신이다. 하느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 회개와 믿음, 희망과 은총에 의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온다. 하늘나라는 우리 개인의 성화와 영성을 가져다 준다. 하늘나라는 영혼이 아니라 인간 전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운 사회생활 안에서 실현된다. 즉 보다 큰 형제 사랑과 연대, 정의와 평화, 기쁨과 나눔 등으로 실현된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성 프란치스코).

우리 모두 복음을 실천하자.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마태 13,51)  
제자들처럼 “예”하고 대답하자.